

출장복명서

- 해외곡물유통망구축 예타 관련
연해주 현지출장 -

2015.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I.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의뢰에 따라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곡물 조달을 목표로 하는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연해주 현지의 사일로 시설과 현지 유통현황 파악
 - 연해주 현지 진출한 국내기업 면담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황파악

□ 관련기관

- 연해주 우수리스크 : 한국농어촌공사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서울사료 및 현대중공업 농장 및 사일로 시설 방문
-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 곡물수출 관련 블라디보스톡 항만(FESCO) 방문

II. 출장자 명단 및 출장일정

□ 출장자

- 내부 연구진: 유진석 전문연구원
- 주무부처 등 : 농림식품부 1명, 이정회계법인 2명

□ 출장기간

- 2015년 6월 17일(수) ~ 2015년 6월 19일(금)

날 짜	내 용	비 고
6.17(수)	· 한국농어촌공사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방문	- 연해주 진출 영농기업 현황
6.18(목)	· 현지진출 농장 및 사일로 견학	- 현지 곡물저장 및 유통 실태
6.19(금)	· 블라디보스톡 항만 방문	- 곡물 수출시설 파악

Ⅲ. 현지진출 관계기관 방문 및 국내기업 면담 내용

가 현지 진출 관계기관 방문

- 방문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연해주 영농지원센터(우수리스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17일
- 참석대상 및 인원
 - KDI: 유진석 전문연구원
 - 주무부처 등: aT센터 1명 및 이정회계법인 2명
 - 한국농어촌공사: 이은수 센터장
- 면담내용
 - 1) 연해주 진출 일반 여건
 - 연해주는 국경에 인접하여 농지 이외 토지에 대해 외국인도 소유 가능함. 다만, 국경 접경지역 이외에는 일부 토지를 제외
 - 외국인 및 외국자본의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농지소유는 불허하나, 49년 이내에서 임대는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적법하게 농지를 사용한 경우 재계약 우선권 부여
 - 콩에 대해서 수출세만 부과(단백질 공급원)한 사례 있으며, '15년 2월부터 수출세 15% 부과중이며 세율은 유동적임.
 - 유통시설 신축은 러시아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적 절차상 제약요인이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 소요예산 이외에 예비비를 충분히 포함하여 예산책정이 필요함. 이는 건설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기인함.
 - 현지법인 수익의 70% 이상이 영농에서 발생할 경우 농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수익에 대해 13%만 과세하며, 농업기업의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면세
 - 정부는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보조금, 농업재해보험, 융자금 지원,

환급 제도 등의 농업정책 시행하며, 우량종자 보급지원, 토지개량, 농업 생산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함.

- 다만, 융자금 지원이자도 시중금리(10% 수준) 영향으로 높아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

2) 연해주 진출기업 현황

- '14년 기준 연해주 진출 국내기업은 12개사이며, 상생복지회·서울사료·현대중공업·아로 등 4개사가 전체 재배면적의 94%, 생산량의 95%를 차지함.

- 전체 12개 기업 재배면적은 21,964ha, 생산량은 52,807톤이며, 상생복지회·서울사료·현대중공업·아로 등 4개사의 재배면적은 20,744ha, 생산량은 50,116톤

○ 작물별 영농 현황

- 재배 작물 : 콩, 옥수수, 밀, 보리, 귀리, 알팔파 등
- 재배 면적 : 콩(12,883ha), 옥수수(2,850ha), 벼(3,150), 기타(3,081)
- '15년 영농계획상 콩, 옥수수, 벼 등은 '14년 대비 10~20% 증가
- 조사료, 귀리 등은 판매부진으로 '14년 대비 48% 수준으로 축소
- 러시아 현지 생산단수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콩 : ('08) 1.05 톤/ha → ('09) 1.14 → ('10) 1.05 → ('13) 1.07 → ('14) 1.35

[연해주 진출기업 영농현황]

기업명	주작물	사업장 소재지	2014년		2015년 과종(안)
			면적(ha)	생산(톤)	면적(ha)
계(12개)			21,964	52,807	22,847
상생복지회	콩,벼,귀리	하를 외 4	6,448	15,750	5,500
서울사료	콩,옥수수,귀리	바카틀까 외 3	4,696	10,717	5,314
현대중공업	콩,옥수수,귀리	하를 외 1	7,329	19,283	8,435
아로	콩,보리,귀리	노비니폴스크	2,271	4,366	2,415
남양 유비콤	콩,영경귀	햇산	360	280	450
포항축협	귀리,조사료	노보니폴스크	310	1,016	183
바리의 꿈	콩,된장,버섯	순얏센	200	120	200
아그로아무르	콩,옥수수	빠르지잔스크	350	1,275	350
퓨처인베스트 리더스	곡물유통	스빠스크	-	-	-
김화복	콩	햇산	-	-	-
치코자루엔 엠펙트너스	옥수수,콩	달리레첸스키	-	-	-
해피콩	콩,메밀	미하일로프카	-	-	-

나 현지 진출 기업 방문 - 서울사료

- 방문기관 : 서울사료 바까뜰까 농장(우수리스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18일
- 참석대상 및 인원
 - KDI: 유진석 전문연구원
 - 주무부처 등: aT센터 1명 및 이정회계법인 2명
 - 한국농어촌공사: 이은수 센터장
 - 서울사료: 조영철 상무 등 2명
- 면담내용
 - '08년 연해주에 진출하여 현재 총 6개 영농법인 보유
 - '13년부터 연해주산 곡물 국내반입 실적은 다음과 같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산 대비 낮은 생산성 등으로 현지법인의 수익성은 낮음.
 - 식용 대두(3백톤, '14년), 사료용 옥수수(3천톤 '13년, 5천톤 '14년), 식용 귀리 국내 납품(23톤, '14년)
 - 현재 바까뜰까, 라코프카, 레알바자 지역 등에 3개 일반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수확물 품질관리 및 장기보관이 어려움.
 - 부족한 저장시설에 따라 수확기에 집중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수익성 제고에 불리함, 일반적으로 수확기에 공급량이 많아 판매가격이 낮으며, 보관하면서 판매가격이 높을 때 판매한다면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수확 이후 저장공간 부족시 야적을 병행하고 있어 품질 하락 가능
 - 바까뜰까지역의 경우 현재 2천톤 규모 일반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2천톤 규모 일반창고 확대할 계획임.

- 서울사료는 연해주 소재 사일로를 건설 또는 매입 후 연해주 진출 국내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러시아 현지에서의 높은 시세차익 혹은 한국으로의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한국으로의 곡물수출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도입 규격에 합치하는 건조, 정선, 저장시설을 갖춘 곡물엘리베이터 필요하며, 운송비용을 낮추기 위해 해당 곡물엘리베이터는 철도 운송이 가능한 곳에 위치할 필요가 있음.
 - 서울사료의 전문적이고 대규모의 영농을 위해서는 곡물 전처리(건조, 정선, 저장)시설 및 판매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전문법인(SPC)이 필요함.
- 연해주는 국가 정책적으로 Non GM 곡물만 재배하는 편익이 존재함.
 - 우리나라의 경우 두부 등에 사용되는 콩은 전량 Non GMO만 수입하여 Non GMO 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 미국의 경우 Non GMO 콩과 GMO 콩도 재배하며, Non GMO은 계약재배로만 생산되므로 aT에서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구매 3년 전에 입찰 시행하여 계약재배 유도하는데, 연해주에서 Non GMO 곡물만 재배하므로 이의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aT에서는 Non GMO 콩 확보를 위해 ADM기업과 젠노기업을 상대로 매년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연해주 콩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현재 2개 기업을 상대로 입찰하는 경우보다 aT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Non GMO 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 현지 진출 기업 방문 - 현대중공업

- 방문기관 : 현대중공업 하롤아그로 농장(우수리스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18일
- 참석대상 및 인원
 - KDI: 유진석 전문연구원

- 주무부처 등: aT센터 1명 및 이정회계법인 2명
- 한국농어촌공사: 이은수 센터장
- 현대중공업: 최준호 대리 등 2명

□ 면담내용

- 2만여 ha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4년 0.7만 ha 파종하여 약 1.9만 톤의 곡물 수확
 - 곡물 전처리(건조, 정선, 저장)시설 및 판매처 확보가 가능하다면 현재 보유한 농지 전체에 영농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농지의 추가 확보를 통한 영농이 가능할 수 있음.
- 한국 수출시 국내통관을 위한 품질에 미달할 경우 반송, 즉, ship back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지의 착유공장 등에 전량 판매하고 있음.
 - 한국으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환율도 중요하지만, 품질관리가 더욱 중요함.
- 현대중공업은 생산량과 저장용량을 연계하여 산지 사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현재 3천톤 사일로 4기(1.2만톤) 보유, 향후 3천톤 사일로 6기(1.8만톤) 증축 추진
- 곡물 전처리 시설, 즉 건조, 정선, 저장, 이동이 가능한 터미널 엘리베이터 확보시 생산량 증가 및 가격협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최신설비를 구비한 엘리베이터 확보시 미건조 상태에서도 수확후 건조가 가능하므로 기온급락 등 기상 리스크 관리 가능
 - 건조시설이 없을 경우 자연광을 활용하여 충분한 건조 후 수확이 필요하므로, 최대한 늦게 수확해야 함.
 - 자연건조를 위해 최대한 늦게 수확하는 경우, 기후급변으로 인한 곡물 피해 위험을 영농기업이 전부 떠안아야 함.
- 품질관리를 통해 현지 생산업자들은 우리나라·일본 등으로 적합 규격 수출이 가능하므로 수출물량 증대에 따른 생산면적 확대효과가 있음

- 생산면적 확대는 규모의 경제로 이어져 생산단가 절감에 기여
- 궁극적으로 해외곡물의 안정적 확보라는 정책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현지판매 이외에 대안 확보가 되어 현지 주요 수요처인 착유공장과도 가격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음.
- 대규모 취급물량이 없고, 장기보관이 어려우므로 개별사 입장에서는 협상력 저하의 요인이 되어 착유공장 등이 제시하는 판매가격 수용하고 있으며,
- 곡물전처리시설, 즉, 건조, 정선, 저장 등이 가능한 곡물엘레베이터가 있어야 국내 도입이 가능할 수 있음.
- 이는 국내도입을 위한 품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가공을 통한 품질유지(Quality control)가 필수적임.

라 블라디보스톡 항만(페스코사 방문)

- 방문기관 : 페스코사(블라디보스톡 항만)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19일
- 참석대상 및 인원
 - KDI: 유진석 전문연구원
 - 주무부처 등: aT센터 1명 및 이정회계법인 2명
 - 한국농어촌공사: 이은수 센터장
 - FESCO: CEO Valeriy Mestulov 등 3명
- 면담내용
 - 블라디보스톡 항만에서의 벌크곡물 선적현황 파악을 위해 방문
 - 화물기차를 이용하여 선적하는 경우 일 최대 6천톤까지 처리 가능
 - 수출항구에 곡물 전용 사일로가 없어(즉, 보관장소가 없음.) 트럭을 통한 선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현재 화물기차(1량 80톤 적재가능)를 활용하여 우수리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 항만까지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 국내기업이 진출해 있는 우수리스크 소재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시 철도 운송으로 연결하여 수출 물류비 절감 가능
- 항만에 곡물 전용 터미널 개발은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
 - 현재 동남아 수출을 위한 곡물 전용 터미널 개발 계획은 없으며 연간 처리물량이 3백만 톤 정도 될 경우 검토 가능
- 연해주의 생산량 증대가 우선순위이며, 생산량 증대에 따른 잉여물량이 있을 경우 단계적으로 곡물 터미널 개발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임.

마	타 국가 영농기업 연해주 진출 현황
----------	----------------------------

- 일본은 Non GMO 계약재배 의향 등 조사를 연해주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 영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 일본은 주로 아모르주, 시베리아주 등에 진출
- 중국은 정부의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진출 활성화
 - 대표적인 기업은 아르마다로 12년 경 진출하여 3~4만 ha 영농 중
 - 국경지역 인근에 농기계 리스센터를 운영하여 필요시에만 임시통관하고 반환이 가능토록 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비용 절감에 기여
 - 영농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파인낸싱 등 유관 사업도 영위
- 북한의 경우에도 연해주에 노동자를 파견하여 영농중인 것으로 파악

바 현지 사진

-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협의 및 터미널 엘리베이터 견학



농어촌공사 영농지원센터 방문, 우스리스크 지역 구 곡물터미널 엘리베이터

- 서울사료 농장 및 사일로 시설 견학



서울사료 농장, 서울사료 야적, 서울사료 일반창고

- 현대중공업 관계자 협의 및 농장 방문



현대중공업 사일로, 현대중공업 농장

○ 블라디보스톡 항만



페스코 관계자 면담, 벌크곡물 선적 부두